



NH농협은행 IT사랑봉사단, 의왕시에 김장김치 재료 후원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IT사랑봉사단과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의 의왕시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장김치 재료 1200kg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의왕시지부장 황성용, IT노동조합위원장 서을구, 의왕시장 김상돈, IT부문장 박상국, 정보보안부문장 김유경. /NH농협은행



코트라, 오늘부터 방산·보안 수출주간 개최
KOTRA(코트라)가 18일부터 일산 킨텍스와 코트라 사이버무역상담실에서 '2020 한국 방산·보안 수출주간'을 사흘간 개최한다. 대한민국방위산업전과 연계해 일산 킨텍스와 코트라 사이버무역상담실에서 온라인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방산·보안 분야 7개 중소·중견기업과 20개교 65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모두 243건 수출 상담을 한다. /코트라



교보증권, 코로나 의료진에 응원상자 전달
교보증권은 오는 2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응원상자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임직원들이 희망팔찌, 희망엽서를 만들고, 마스크 스트랩, 핸드크림, 영양제, 건과류, 쿠키 등을 담아 응원상자 총 320개를 만들었다. 응원상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의료진에게 전달됐다.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현대ENG-LH, 히터파일 건설기술 상생협약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신기술 제891호의 보급 및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건설신기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신기술 관련 기술 교류 ▲신기술 관련기술개발 및 추가 연구 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삼표피앤씨 정인철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황현규 부사장, 비티이엔씨 김대권 대표, LH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광동제약 비타500 청소년 응원 챌린지 성료

광동제약 비타500은 평소와 함께한 청소년 응원 챌린지인 '비타500 언택트 허그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동제약 공식 SNS를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행사에는 4만여건의 '좋아요'와 댓글 1600여개 등이 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네티즌들은 청소년 응원이라는 행사 목적에 공감하며 다양한 댓글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댓글 중에는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힘내라!" "청소년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푸른 날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등 청소년 전체를 응원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홍경안의
시시일각

비엔날레의 건강성은 지구촌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나에 있다. 공간의 확장과 구성의 짜임새는 부차적인 문제다. 미술 담화의 생성과 미적·사회적 공론의 성취가 개최의 주요 목적이자 당위성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막을 내린 부산비엔날레(9.5~11.8)는 그에 상응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기획자인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의 주장처럼 하나의 역동적 파괴의 모델로서 존재했다면 좋았으련만 아쉽게도 미팅한 기획전에 그쳤고,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과 쟁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미미했다.

코로나19로 주요 비엔날레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가운데 열린 국제미술전이 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부산비엔날레는 지역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우선시하는 서구 기획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약 두 달간의 일정을 조용히 마무리했다.

반면 부산비엔날레와 20일 차이로 개막한 부산시립미술관의 '중국동시대 미술 3부작: 상흔을 넘어'(9.25~2021.2.28)는 비교적 명료한 색깔을 나타냈다. 미술관의 올해 첫 국제전이

상흔을 넘어

도 한 이 전시는 중국의 대약진운동(1958~1962)과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운동인 문화대혁명(1966~1976, 이하 문혁) 이후 신시기(新時期, 개혁 개방 시기)를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 명의 작가 작품 40여점에 담았다.

중국 최초의 전위예술그룹으로, 사회참여적인 미술운동을 넘어 문화운동의 의의까지 지닌 '심심화회'의 주진스, 개인적인 공간인 아파트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해 문혁 당시 겪은 경제적, 정치적 곤란을 보잘 것 없는 소재로 표현해온 쑹둥, 세계에 대한 신세대 예술가들의 해석과 분석을 보여준 포스트-센스 센시빌리티(Post-Sense Sensibility) 그룹의 류웨이(류웨이)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미술사적으로 마오쩌둥 사후 정치적 해방을 맞아 문혁의 아픔과 혁명 시기 비극을 그린 상흔미술, 농민들과 소수민족들의 순수함을 찬미하는 이미지를 통해 마오의 '프로레타리아의 미술'을 부정하며 문혁의 핵심사상인 계급투쟁론을 전복시키려 한 향토사실주의 미술과 무관하지 않다.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상흔의 자장 내에 머문다.

또한 중국 현대미술의 본격적인 전개가 이뤄지는 1980년대 자기 부정적이고 철학적 경향의 작품들로 제도권의 통제와 검열에 대한 저항과 사상의 자

유를 추구한 '85 신사조 미술운동'과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등장한 '후89 미술'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모두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경험에 대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현실인식과 맞닿아 있다.

비록 이들 외에도 대중적 판타지와 욕망적 소비주의를 복합적으로 엮은 정치 팝(Political Pop)의 왕광이를 비롯해 우어산, 샤오루, 바오원, 쉬빙, 양젠중, 장페이리, 수이젠리 등 호명 가능한 작가들이 적지 않고, 전시의 기준이 되는 상흔의 흔적 역시 불충분하지만 투박하게나마 낯선 중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이다. 더불어 전시서문에 서술된 "급변했던 중국의 사회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민주화, 자본의 유입, 그리고 그로 인한 도시화라는 사회적 전환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시는 자본주의가 낳은 신분 및 계급사회의 가속화를 비롯한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무관심한 채 예술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 한국미술의 현재를 빗대볼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 빈부 갈등과 부패, 파렴치한 정치인들로 인한 동시대인들의 상처를 끌어안아 보듬지 못하면서도 예술가라 불리길 원하는 이들의 염치없음을 소환한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심매경 예술감독

국민은행,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부금 4억 전달

독립유공자·후손 돕기 등에 지원

KB국민은행 지난 16일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부금 4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부금 4억원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장학금에 3억원, 독립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 조성 지원에 1억원이 쓰여진다.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은 KB국민은행이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사업이다.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됐던 유관순 열사 등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옥중가 가사에 새롭게 선율을 붙여 '대한이 살았다' 음원 및 기념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된 것이 캠페인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에는 정재일, 박정현, 김연아가 음원 및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했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남산동 소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B국민은행

다. KB국민은행은 영상 공유 및 좋아요 이벤트를 통해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3월 '3.1 독립선언광장' 건립에 1억원을 후원했었다.

올해는 정재일, 매드클라운, 가수 루나, 그라피티아티스트 닌볼트가 음원과 영상 제작에 참여했으며, 영상 공유 및 좋아요 이벤트로 1억원을 적립해 독립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이 살았다 통장' 발행 이벤트를 통해 1좌당 3000원씩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지원한다. '대한이 살았다' 통장 겉면은 지난 8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흥대 KB춘천마루 외벽의 대형 벽화에 그려진 '독립영웅 11인의 미소' 이미지로 제작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기부금이 순국선열의 날에 전달될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충북도립대학교 ▲교학처장 김종구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미디어센터장 김태영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조주연
- ◆학교법인 덕성학원 ▲미래전략실장 조

문배 ▲사무국장대우 김유경

부음

▲김강희씨 별세, 김상수(해럴드경제 증권부 팀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 02-3779-1526

▲김순환씨 별세, 이종갑(국가원경영지원본부장)씨 모친상 = 17일 오전 6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낮 12시. ☎ 031-708-4444